

# ‘학종 유지 vs 정시 확대’ 대입개편 여전히 평행선

### 단체별 이견...교육부 ‘공 떠넘기기’ 비판 목소리도 10일 전남대서 ‘호남권 간담회’ 모바일 제안 가능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 대입제도 개편 특별위원회가 이달부터 2022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개편안 마련을 위한 여론 수렴에 나서기로 한 가운데 교육단체 별로 상반된 의견을 내놓는 등 논란이 지속하고 있다.

서울교사노동조합과 좋은교사운동, 경기교육희망네트워크 등 23개 교육단체는 최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부종합전형 유지·발전과 대학수학능력시험 전 과목 절대평가를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일부에서 ‘학생부전형을 축소하고 정시를 확대하자’는 쪽으로 여론을 호도해 초·중·고등학교 교육이 수능과목 위주 암기·문제풀이식 교육으로 회귀할 위험한 상황”이라며 “학종의 불공정요소는 제거되고 그 취지는 살려 유지·발전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를 시행해야 한다”면서 “수시모집과 정시모집 전형 시기를 통합하되 통틀어서 학생들이 수능성적을 알고 대학에 지원하게 된다 는 점을 이용해 대학들이 수능을 중시하

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고교학점제 도입에 맞춰 고교 내신 전 과목에 성취평가제(절대평가)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면서 “학교현장 교사의 의견을 존중하며 대입제도를 시급히 설계해 국민 앞에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이라는 단체도 기자회견을 열고 수능 전 과목 상대평가와 대입에서 정시모집 비중을 50% 이상으로 높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이 단체는 또 “교육부가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과 연계해 각 대학에 내린 수시모집 수능최저학력기준 폐지 권

고를 철회해야 한다”면서 “수능 수학 가형 출제범위에 기하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육부가 대입제도 국가교육회의 이송안을 발표하며 대입제도 큰 방향조차 제시하지 못해 학생과 학부모가 피말리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서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사퇴를 요구했다.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 대입제도 개편 특별위원회가 주최하는 2022학년도 대학 입시제도 개편을 위한 호남·제주권 간담회가 오는 10일 전남대 컨벤션홀에서 열린다.

전국 권역별로 열리는 행사에서 충청권 간담회는 오는 3일 충남대 정심화국

제문화회관 백마홀에서 열린다. 10일에는 호남·제주권 간담회가 전남대 컨벤션홀에서 열린다. 참석자는 서면 제안서를 내거나 자유발언을 하는 방식으로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현장에서 모바일로 실시간 제안을 할 수도 있다.

특위는 이와 별도로 학생·학부모·교원·시민단체 등 여러 관계자 의견을 심층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이해관계자·전문가 협의회를 열고, 온·오프라인 의견 수렴도 병행한다.

학생·학부모 등 누구나 국가교육회의 누리집(www.eduvison.go.kr)을 찾으면 대입제도 개편에 대한 의견을 낼 수 있다.

한편,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을 위

한 국민 여론수렴 과정을 김영란 전(前) 대법관이 이끌게 됐다.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는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를 담당할 ‘공론화위원회’를 발족하고 위원 7명(위원장 포함)을 위촉했다.

위원장은 대법관과 국민권익위원장을 지내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을 제정한 김영란 서강대 석좌교수가 맡는다. 위원으로는 ▲강원철 호서대 빅데이터경영공학부 교수 ▲김학린 단국대 협상학과 교수 ▲심준섭 중앙대 공공인재학부 교수 ▲이희진 한국감등해결센터 사무총장 ▲한동섭 한양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가 참여한다.김형호기자 khh@연합뉴스

## 진로교육 전용 ‘진로활동실’ 10개 학교 구축

### 광주시교육청 지원

광주시교육청이 올해 10개 중·고등학교에 진로활동실을 구축한다.

진로활동실은 ‘진로와 직업’ 등 진로교과수업, 진로상담, 진로적성검사, 진로체험, 동아리 활동 등을 할 수 있는 진로교육 전용공간을 말한다.

광주시교육청은 올해 안으로 중학교 6개교와 고등학교 4개교를 선정, 진로활동실 구축을 지원한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교육청은 앞서 지원학교 선정을 위해 지난 1월 응모신청서 접수 및 운영계획서, 시설투자확인서 심사를 벌였고 최근까지는 응모 학교를 대상으로 현장실사를 진행했다. 선정된 학교는 올 9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진로활동실은 진로상담과 수업을 할 수 있는 교과교실형(교실 1칸), 진로상담을 할 수 있는 소규모 전용공간인 상담실형

(교실 0.5칸), 진로상담과 교과수업을 분리해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인 혼합형(교실 1.5칸) 등이 있다. 시교육청은 혼합형(1.5칸)과 교과교실형(1칸)을 우선 지원하고 있다.

학생들은 진로활동실을 통해서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맞춤형 진로활동을 실시하고, 진로 동아리 공간 확보를 통해 다양한 진로체험 기회를 제공받게 된다. 학교에선 체계적인 진로교육과 진로상담 활동을 추진과 함께 교원과 학부모 대상 진로 연수도 진행한다.

특히 진로활동실 구축 학교는 ‘진로캠프’ 또는 ‘학부모 진로아카데미’ 중 하나를 선택해서 운영해야 한다. ‘진로캠프’는 주변의 중·고등학생 대상으로 1회 6시간 이상, ‘학부모 진로아카데미’는 주변 학교 학부모를 대상으로 총 10시간 이상 강제로 운영된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 동신대 한방병원, 치매 임상 연구기관 선정

동신대학교 광주한방병원이 정부기관의 지원을 받아 치매 예방과 치료를 위한 임상연구에 들어간다.

동신대 광주한방병원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지원을 받는 ‘2018년 한의기반 융합기술개발 다빈도 난치성 대응기술개발사업’의 임상 연구기관으로 선정됐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김재홍(침구학과) 교수팀이 오는 2020년까지 3년 동안 5억6000만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치매 전(前) 단계인 ‘경도인지 장애환자’를 대상으로 임상시

험을 진행한다.

전립(전기침)과 전산화 인체재활 병용 치료가 치매 증상을 예방하거나 완화하는데 얼마나 효과가 있고 안전한지 등을 연구한다.

동신대 광주한방병원 관계자는 “난치질환인 치매 예방을 위한 양·한방 융합치료기술을 개발하고 협력 진료와 협력 연구 시스템을 구축해 한의학과 의학의 통합의 학 기틀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조선대학교 치매국책연구단은 최근 중국 수도의과대 치매연구소와 한·중 공동 치매예측기술 개발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조선대 제공)

## 조선대 ‘치매예측 시스템’ 중국서 시범 운영

### 중 수도의과대와 업무협약

조선대학교 치매국책연구단(단장 이근호)이 중국의 주요병원에 치매 관련 연구성과와 분석기술을 보급한다.

지난 30일 조선대학교에 따르면 최근 치매국책연구단 회의실에서 중국 수도의과대 치매연구소(소장 지아 지안핑)와 한·중

공동 치매예측기술 개발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근호 조선대 치매국책연구단장은 “업무협약에 따라 조선대 치매국책연구단이 개발한 뇌 영상 분석기술 및 치매 유발 유전변이 분석기술 등을 중국의 주요 대학병원에 시범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선대 치매국책연구단은 5년여 연구 끝에 고령 한국인 표준뇌지도 작성을 완성했다. 이를 토대로 치매 발생 가능성을 조기 예측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 올 하반기 상용화를 목표로 식약처 인·허가 절차를 진행 중이다.

조선대는 한국인 치매환자를 비롯한 8000여명의 동아시아인 유전체를 분석하

여 동양인에게 높은 빈도로 나타나는 치매 유발 유전변이를 새롭게 밝혀냈다. 또 미국 알츠하이머병 유전학 컨소시움이 보유하고 있는 3만 여명의 알츠하이머병 관련 세계 최대 규모의 유전체 빅데이터를 활용, 이번에 새롭게 규명된 치매 위험인자에 대한 검증을 마무리한 상태다.

이에 따라 조만간 새롭게 개발된 유전자 검사기술을 적용할 경우 극미량의 혈액이나 간단한 타액 검사만으로도 치매 조기에 측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몸매보정 된다는데, 순환안되고 갑갑함쯤이야? **아닙니다. 나를위해 포기할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능성속옷 장수기업

## 가능성 속옷 의명가

KCPRA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2033, 2034, 2035, 2036, 2037, 2038, 2039, 2040, 2041, 2042, 2043, 2044, 2045, 2046, 2047, 2048, 2049, 2050, 2051, 2052, 2053, 2054, 2055, 2056, 2057, 2058, 2059, 2060, 2061, 2062, 2063, 2064, 2065, 2066, 2067, 2068, 2069, 2070, 2071, 2072, 2073, 2074, 2075, 2076, 2077, 2078, 2079, 2080, 2081, 2082, 2083, 2084, 2085, 2086, 2087, 2088, 2089, 2090, 2091, 2092, 2093, 2094, 2095, 2096, 2097, 2098, 2099, 2100

한국, 미국, 일본, 중국특허 | 편안한착용감 | 해양심층수 각종미네랄  
부위별로 특별하게 | 탄성GOOD! 흡발습GOOD! | 이온, 실리카미노산,  
생리적인 불편을 해시 | 일본 도레이社 LYCRA | 원적외선 특수물질 가공  
별단면속각형 사용

www.aroma-life.co.kr

# 1588-2219